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여래출판사

“출판은 인생과 딱 붙어있는 것”

도서출판 여래를 찾아 4월 22일 옹인으로 발길을 옮겼다. 대부분의 불서출판사들이 서울 조계사 인근에 모여 있는데,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셈이다.

“원래는 저도 종로 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넓은 장소를 찾아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하.”

도서출판 여래 정창진 대표가 반갑게 맞으면서 이야기한다. 정 대표는 현재 요가원과 출판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요가가 정신 수련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낀 그는 아직 종로에 있던 시절인 5년 전부터 요가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종로는 임대료도 비싸고 장소도 좁아 3년 전에 옹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요가원을 두고 ‘외도’라고 농 반 섞어 이야기 한다. 그러나 농담이라고 넘기기에는 정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수련과 퍼낸 요가서적의 양이 만만치 않다. 그가 만든 요가 책들은 지금 한국 사회에 퍼져있는 ‘체조식’ 요가를 지양하고 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래서 여래에서 출판된 요가 책은 정신수양을 목적으로 요가에 다가서는 사람들에게 읽히곤 한다.

요가원에서 커튼으로 가려진 부분을 걷어보면 공간이 하나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정 대표가 작업하는 도서출판 여래 사무실이다. 한쪽 벽면에는 지금까지 여래에서 출판한 도서들이 가지런히 꽂혀있다.

정 대표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보면 ‘그림 요가원만 운영하면 될텐데’ 하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람의 꿈이란 그렇게 단순하게 접었다 폄다 할 수는 없는 것. 정 대표 역시 왜 고민이 없었을까.

“돈벌이로만 생각했다면 진즉에 불서출판사, 문 닫았죠.”

불서는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훌륭한 방편이지만, 그것이 시중에서 유통되면 ‘상품’이다. 시장 논리로만 따진다면 불서의 외연만 확대되고 독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불서를 펴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의 고집은 시장논리를 훌쩍 뛰어넘는 것 같다.

‘소박’한 마음으로 20년...70여 종 펴내 ‘행복한 세상’ 통해 불교 밖 이야기 담아

그는 딱 이 한 문장으로 불서출판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를 정리했다. 정 대표에게 불서 만드는 일은 몸이 밴 습관, 나아가서는 그 인생 자체여서가 아닐까 싶다.

도서출판 여래가 처음 문을 연 것은 1988년. 설립 당시에는 모 스님을 대표로 출판 등록을 했으나, 그것을 곧 정 대표가 인수했다. 스님에게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출판사를 이어나갈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하게 큰 뜻이 있어서 출판사를 인수한 건 아닙니다.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했고, 편집일과 잡지사 일을 좀 하다 보니 불서 출판 쪽이 잘 맞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정 대표는 고요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한다. 오히려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20년 동안이나 출판사를 이끌어올 수 있었을 터다.

그렇게 시작해 맨 처음 만들어 낸 책이 <포교사 포교법>이다. 당시 포교사들을 위한 교안 형식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자료가 귀하던 그 시절, 포교사들에게 소중하게 쓰였던 지침

서였다. 지금은 절판됐다. 이렇게 시작해 지금까지 만들어 낸 책은 70종 정도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출판사를 소중하게 가꿔왔다는 데가 난다. 경전 강의서부터 쉽게 읽을 수 있는 불교이야기까지 다각도에서 불교를 조명하려 애써온 것이다.

그런 중에도 가장 아끼는 책이 있다면 <행복하게 사는 법 아름답게 죽는 법>(정재 제과 <법성계 강의>/석우 제다. 두 책은 정 대표와 인연이 있는 스님들이 지은 책인데 <행복하게>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쓴 책이고, <법성계 강의>는 <회음경> 가운데서 의상대사가 가르쳐 정리한 <법성계>를 석우 스님이 다시 하나하나 설명한 책이다.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책이지만 분명한 것은 책을 지은 사람들이 풀어야 할 세상에 대해 깨달음을 통해 좀 더 세상에 대해 깨닫는 것이다.

정 대표와 출판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출판인은 역시 사람



을 좋아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로 시절엔 3평 남짓한 출판사가 사랑방처럼 운영됐습니다. 동국대 시간강사들, 스님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차 한 잔 하고 가셨죠.”

그 시절이 못내 아쉬워서일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사람과의 끈끈한 정을 잊을 수 없어 주말만 되면 서울로 가서 어울린다고 하니, 어쩌면 사람 좋아하는 것은 천성인 듯 싶었다.

도서출판 여래에 대해 아는 사람만 아는 사실이 하나 있다. 요즘 많은 출판사가 그렇듯 여래도 ‘행복한세상’이라는 또 다른 브랜드를 갖고 있다. 행복한세상은 이를테면 쉽게 읽힐 수 있는, 보다 넓은 세상을 향해 뻗어 있는 도서출판 여래의 줄기다.

행복한세상을 통해 좀 더 일반적인 불서를 만든다면 도서출판 여래에서는 예전에 퍼냈던 책들 중 몇 가지를 다시 작업해 재출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정 대표는 새 책도 조만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제 불서를 만든 지 20년. 출판을 권 적도 있었지만 정 대표는 지금까지 불서출판사의 명맥을 이어왔다. 그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까.

“불서출판사들이 현재 메이저 출판사들의 불서시장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각자 가지고 있는 색깔을 최대한 살려 승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여래는 제 색깔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 ‘우리 색깔’을 찾아야겠죠.”

글·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도서출판 여래 불서 BEST 10

순위	도서명	출판년도	지은이
1	행복하게 사는 법 아름답게 죽는 법	2004	정재
2	법성계 강의	2005	석우
3	대승불교	1995	사퇴니 대사, 스구로 신조, 공재, 문음식역
4	조주선사 선문답(상·하)	2006	석우
5	사원예법과 불자예절	2000	성수
6	초발심자경문	2003	원혜
7	영기천도를 위한 기도법	1999	화암
8	재미있는 인과이야기(인과의 수레바퀴)	1997	임원웅
9	천수경 강의	2006	석우
10	사백술길	2005	원혜

한국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 출시!

보고·듣고·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불법을 공부하시는 사부대중 -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불경 학습기!

염불(念佛), 염송(念誦)모음

- **염송경**
 - 반야심경 · 천수경 · 불설아미타경 · 금강반야바라밀경 · 원각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 불설약사여래본원경
 - 화엄경 보현행원품 · 화엄경 약찬계 · 초발심자경문 · 무상계
 - 의상조사 법성계 · 장엄염불 · 부모은중경 · 백팔대참회문
 - 대불정능염신주 · 지장보살본원경 · 천지팔양신주경 · 보왕삼매론

- **염송의법**
 - 송주편 · 예경편 · 불공편 · 천도재 · 49재편

지금 바로 신청 하십시오.

도연아카데미 문의 및 신청 (02)2666-0676~8

157-280 |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6 상희빌딩 301호

▶ 전국 소호점 문의 : 011-785-9398

▶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구성
- 아이센스, 염송경집 1부
염송의법 1부

• **제품명 : 아이센스 T-108**

• **제품구성**

- 아이센스 · 염송경집 1부 · 염송의법 1부
- 기기크기 : 9.5cm×6cm, 화면크기 : 5cm×4cm, 기기두께 : 0.8cm

• **제품의 특징(개발동기)**

의식을 공부하시는 불자들의 종전 학습방법은 책을 본다는지 테이프를 듣는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었으나, 본 제품은 염송경과 염송의법을 듣고 화면으로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한글로)과 의식까지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불경을 학습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 **제품 사양**

컨텐츠캡션 MP4 재생기능, 동영상촬영, 내장형카메라, MP3, 멀티태스킹 · 백그라운드음악, 내장2G 플래시, 외장 2G, 320×240 TFT LCD 화면, FM라디오 내장, 터치패드사용, 게임기능, 전자수첩, 영·일·한자 전자사전

※ 영·일·중국어도 함께 공부 할 수 있습니다.